

# 건강한 문화

이연옥 <<< 한국성서학연구소 이사장

사실 문화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개인이 어떤 일을 같은 양식으로 반복할 때 이것은 버릇 또는 습관이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은 양식으로 반복한다면 이것은 관습 또는 문화가 된다. 즉 공동생활이나 공동행위에 있어서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다. 문화는 사회적 유산이기에 사회의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는 안정과 변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전통을 보존, 유지하는 한편, 역동적 변화와 점차적 변화와 혁명적 변화를 겪는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속한 세계관과 국가관 특히 역사관과 가치관을 이해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의 국민적 과제는 건강한 문화 창조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증명하듯이 120여 년 전에 폐쇄된 문화 속에 무속신앙으로 뿌리 깊은 풍토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된 것

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라고 확신한다.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 교회에 초창기 성도들은 기독교 문화를 정립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초창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와 전도와 성경 공부에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문화 창조의 주역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다. 한국 교회가 지도자 양성을 위해 기독교 사립학교를 도처에 세워 폐쇄된 문화를 기독교 신앙으로 새로운 풍토 조성에 큰 몫을 한 것을 한국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선배들이 전수해 주신 신앙의 유산을 보수할 책임과 변질되어 가고 있는 문화를 바로 세울 역사적 사명이 있다. 따라서 “건강한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

문화란 다양한 분야와 관계가 있다. 문화를 논할 때,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강한 문화”에 대해서도 쉽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문화의 주역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 창조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성경에는 지도자에 대하여 큰 인물, 으뜸이 되는 인물에 대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다. 그러므로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지도자에 대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기로 한다.

### 첫째, 섬기는 지도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3-44).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위대한 지도자의 섬김에 대하여 교훈하셨다. 오늘 우리 사회는 1,20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 인구를 갖고 있다. 사실 초창기 교회는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성령에 힘입어 위대한 국가관과 역사관,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 범신론적 문화의 풍토를 갈아엎어 복음의 문화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미치는 곳보다는 불신앙 풍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 위험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 시대는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는 감성주의로, 이성의 통제 없는 감성의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때 건강한 문화 창조를 위해 바른 인생관을 가진 지도자로 술선수범하는 헌신적인 섬김의 종이 필요하다.

### 둘째, 정직과 충성된 지도자

하나님 중심의 문화는 정직이 지배하는 문화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진리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는 문화이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근면과 성실과 정직을 가르쳐 주셨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좋은 주인이 타국에서 귀국하여 회계(會計)할 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하고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하며 있는 것까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건강한 문화는 국민성과 직결이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일군으로 부름 받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 받았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더욱이 세계가 경제대란이라고 우왕좌왕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성경에서 번영하는 국민은 근면하고 노동을 신성시하며 균형 잡힌 여가문화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쉬를 가지며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지는 정

직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산다.

### 셋째, 삶에 기쁨을 주는 지도자

삶에 기쁨을 주고 삶의 깊이와 풍요를 더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및 예술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상징들이다. 시편 150편에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분노와 눈물의 세계가 아니라 노래와 기쁨과 풍요를 찬양하는 세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울려 퍼지는 세계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분출되는 세계이다.

건강한 문화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사명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 기쁨은 거저 오지 않는다. 바울 사도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교훈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감사 안을 때 기쁨이 넘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과 원한으로 얼룩져있다.

우방인 미국에 새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을 했다. 많은 일화들이 있다. 취임식(2009년 1월 20일) 전날 19일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위원을 위한 만찬을 주최해 “미국을 위해 평생 봉사한 애국자”라고 칭송했을 때 공화당 위원들까지도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말로는 협력한다고 하지만 헐뜯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 넷째, 베푸는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는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다. 시편 저자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 37:21)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주는 문화”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힘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힘이라고 하셨다. 건강한 사회는 베푸는 문화, 즉 기부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사회로 부흥 성장한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이 힘이란 정신력, 영력을 의미한다. 주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앓은뱅이에게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소수들’이다. 즉 사회의 위기를 자기 온몸으로 절감하는 용기 있는 개개인들의 헌신과 희생적 봉사만이 사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Creative Minority)라고 한다”고 하였다.

총체적 위기라고 절망하는 때 주님께서 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로 거듭나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 이연옥 장로회신학교(Th.B.)와 경북대학교(B.A.)를 나와 미국 리치몬드 장로교 기독교교육대학원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범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이며 본 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